

살롬!

늘 사랑으로 감덴에 협력선교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경래 목사님과 섬기시는 송원교회에 인사드립니다. 필리핀 감덴 홍성욱 김한나선교사 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24년 감덴 선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올 3월부터 9월까지 계엄령 수준과 같은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바랑가이(우리나라 동 단위 예 주안동)가 봉쇄되면서 개인이동과 공공 교통과 개인 운송수단이 전면 금지되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교인들이 줄지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홀로되신 노인분들은 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렸고 아픈자들은 공립 병원 치료와 입원이 중단되면서 너무도 비싼 사립 병원은 돈이 없어 갈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어 올해는 쌀과 마스크를 나눠 주고 치료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게 가장 급선무로 요청되 어지는 선교였습니다. 감덴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송원 교회가 늘 한결같은 사랑의 후원으로 협력선교 해주시고 오랫동안 나누어 주신 귀한 사랑의 물질로 쌀을 사서 감덴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쌀이 부족한 저들에게 너무도 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래 목사님! 송원교회 성도님들 감덴에 사랑의 천사 되어주심이 지금도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감덴 빈민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도 전면 금지되어 오다가 3주전에 30프로 교인 참석으로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어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역과 속회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에 속회별로 성경을 읽고 중보기도하며 성경필사를 시작하고 주일은 속회와 구역별로 자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모여진 헌금은 그 지역에 쌀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즉시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입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픈 환자들을 교회 임원들과 속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 홀로되신 노인분들 집을 찾아가서 빨래해 주고 청소해 주고 밥을 해주는 모습들은 그저 하나님 땡큐 땡큐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지역의 어린이들을 토요일에 토요 성서 학교로 모여 어린이들에게 예배와 성경공부 분단 활동을 자치적으로 가르치고 속도원들이 간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모습은 행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것 같은 느낌이 참 보람되고 좋습니다

조경래목사님!. 송원교회 성도님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교회도 어려운 지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주심에 울컥하고 감동입니다. 뭐라고 감사를 표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계속 감덴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덴 교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덴에 사랑의 천사 되어 주신 송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주심과 복주심이 목사님의 사역과 송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아멘

내년에는 코로나가 해결되어 찾아 뵈고 감사 인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쌀라맛 뽀에요.

- 홍성욱 김한나 선교사 드림 - 2020. 12. 08.

